

Session 1: “Why Study the Book of Zechariah?” & “Understanding Its Historical Context”

제 1 장: “왜 스가랴서를 공부해야 하는가?” 그리고 “스가랴서의 역사적 배경 이해하기”

I. THE WHOLE BOOK OF ZECARIAH IS ABOUT JERUSALEM

스가랴서 전체는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다.

- A. The whole book of Zechariah is about Jerusalem. *Why care about Jerusalem?* We care because Jesus is zealous for Jerusalem and will return to live there forever. He has great affection for this city. We ask the Spirit to teach us what He sees and feels about Jerusalem. I want to be zealous for whatever Jesus is zealous for. In the Scripture, *Zion* usually speaks of Jerusalem.

스가랴서 전체는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다. 왜 예루살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열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분은 이 도시를 향해 큰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관하여 무엇을 보고 느끼고 계시는지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간구한다. 나는 예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에 대해 동일하게 열심을 가지기를 원한다. 성경에서, 시온은 보통 예루살렘을 지칭한다.

²“*I am zealous for Zion with great zeal ...³I will return to Zion, and dwell in the midst...*”
(Zech. 8:2-3)

²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³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슌 8:2-3)

- B. Jesus’ worldwide government will be in Jerusalem, and all nations will be gathered there. We are to understand this simply because it is important to Jesus and because we know God’s eternal and end-time purposes are “Jerusalem-centric.”

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정부는 예루살렘에 서게 될 것이며, 모든 열방이 그곳으로 모여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께 중요하기 때문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마지막 때의 계획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펼쳐질 것을 알기 때문이다.

¹⁷“*Jerusalem shall be called The Throne of the LORD, and all the nations shall be gathered to it, to the name of the LORD, to Jerusalem.*” (Jer. 3:17)

¹⁷ 그 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와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렘 3:17)

- C. We easily neglect Jerusalem, because we do not see how it affects our ministry, money, and relationships. What happens in Jerusalem is a witness to the nations of God’s leadership and faithfulness to His Word. The issue of Jerusalem is an issue of His sovereignty and faithfulness to follow through on what He has declared. He put His name on Jerusalem and her people, and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1: “Why Study the Book of Zechariah?” & “Understanding Its Historical Context”

제 1 장: “왜 스가랴서를 공부해야 하는가?” 또한 “스가랴서의 역사적 배경 이해하기”

attached His glory to them. If we care about the glory of God, then we will care about Jerusalem. Jerusalem is the stage on which the end-time drama will be played out before all the nations.

우리는 예루살렘에 대해 쉽게 무시하곤 하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이 우리의 사역과 재정,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리더십과 그분의 말씀의 신실함을 온 열방에 증거하고 있다. 예루살렘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포하신 것들을 시행해나가시는 그분의 주권과 신실하심에 대한 문제가 된다.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 위에 두시며, 자신의 영광을 그들에게 밀착시켜 두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마지막 때의 드라마가 모든 열방 앞에 펼쳐지게 되는 무대이다.

- D. ***Jerusalem is a unique model:*** Jerusalem is a picture that gives us understanding of how God will deal with the nations. We must understand what the Scripture says about the blessings and judgments on Jerusalem because of the principle that I call ***“like kind, but lesser degree.”*** Both the glory and judgments that God will release on Israel in the Tribulation and in the Millennium will be released in ***“like kind, but to a lesser degree”*** on the nations and the Church in this age.

예루살렘은 독특한 모델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어떻게 다루실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림이 된다. 우리는 성경이 예루살렘에 임할 축복과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이해해야만 하는데, 이는 내가 부르는 **“동일한 종류, 그러나 적은 강도”**의 원칙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대 환란과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에 풀어놓으실 영광과 심판들, 두 가지 모두는 **“동일한 종류, 그러나 적은 강도”**로 열방과 이 시대의 교회 위에 풀어지게 될 것이다.

- E. We must become familiar with what happened in the days of Zerubbabel because it is part of our story. From God’s view, the temple in the past and future is the ***“house of prayer”*** (Isa. 56:7). Jesus affirmed this, highlighting its purpose as being a place of prayer and worship (Mt. 21:13). Therefore, the book of Zechariah is also about the prayer movement in Jerusalem. We can look at how the Lord related to Zechariah and Zerubbabel, and see how He will relate to the leaders of Jerusalem and those deeply involved in building houses of prayer at the end of the age.

우리는 스룹바벨 시대에 일어난 일들과 친숙해 져야만 하는데, 이는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거와 미래의 성전은 **“기도의 집”** (사 56:7)이 된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 확증하시며, 이것의 목적이 기도와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임을 강조하셨다 (마 21:13). 따라서, 마찬가지로 스가랴서는 예루살렘에서의 기도 운동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주께서 스가랴와 스룹바벨을 어떻게 관련 지으셨는지를 볼 수 있으며, 주께서 마지막 세대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기도의 집을 세우는 일에 깊이 연관된 사람들을 어떻게 관련 지으실 것인지를 볼 수 있다.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1: “Why Study the Book of Zechariah?” & “Understanding Its Historical Context”

제 1 장: “왜 스가랴서를 공부해야 하는가?” 또한 “스가랴서의 역사적 배경 이해하기”

- F. All who love Jerusalem are to rejoice with her by standing for Jerusalem’s prophetic destiny. We are to rejoice with Jerusalem instead of being critical, disinterested, or disengaged. We mourn for her by understanding her pressures and failures and praying for God’s help and mercy.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은 예루살렘의 예언적인 부르심에 동의함으로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해야 한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대해 비판적이 되거나, 무관심하거나, 동떨어져 있기보다,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해야 한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겪을 고난과 실패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함으로 예루살렘으로 인해 애통해야 한다.

¹⁰ **“Rejoice with Jerusalem...all you who love her...all you who mourn for her.” (Isa. 66:10)**

¹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 다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사 66:10)

- G. God loves Jerusalem, and Satan hates her. God’s zeal is set on Jerusalem—what does He see? Jerusalem is mentioned over 800 times, and Zion 160 times in Scripture, with other references to it under other names. Jerusalem continues forever (2 Chr. 33:4; Ps. 48:8; Joel 3:20; Mic. 4:7).

하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며, 사단은 예루살렘을 미워한다. 하나님의 열심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 - 그분은 무엇을 주목하고 계신가?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800 번 이상 언급되며, 시온은 160 번 이상 언급된다 (다른 이름을 사용해서 이를 지칭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예루살렘은 영원히 존재한다 (대하 33:4; 시 48:8; 율 3:20; 미 4:7).

² **The LORD loves the gates of Zion more than all the dwellings of Jacob. (Ps. 87:2)**

²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데다 (시 87:2)

- H. **Battle for Jerusalem:** The battle for the control of Jerusalem is an intense spiritual, political, and military battle; engaging in this battle is a priority in the Spirit. All nations will gather against Jerusalem, while the whole Church gathers “spiritually” for Jerusalem (12:3; 14:2).

예루살렘에 대한 전투: 예루살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투는 강도 높은 영적, 정치적, 군사적 전투이다. 이 전투에 참여하는 것은 성령님의 우선 순위이다. 모든 열방들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모일 것이며, 온 교회는 예루살렘을 향해 “영적으로” 모일 것이다 (슥 12:3; 14:2).

- I. **The uniqueness of Jerusalem:** Jesus has made unique commitments to glorify Jerusalem as well as to judge, or cleanse, it. Jerusalem has a unique impact on history. Many nations have been affected by their choice to bless or curse Israel.

예루살렘의 독창성: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며 정결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도 유례없이 헌신되어 계신다. 예루살렘은 역사에 보기 드문 영향을 끼친다. 많은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축복할지, 저주할지에 대한 자신들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다.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1: “Why Study the Book of Zechariah?” & “Understanding Its Historical Context”

제 1 장: “왜 스가랴서를 공부해야 하는가?” 또한 “스가랴서의 역사적 배경 이해하기”

³*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I will curse him who curses you... (Gen. 12:3)*

³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창 12:3)

- J. Jerusalem is unique in blessing. God promises to prosper any who will love and pray for Jerusalem, because God’s house, or temple, is in Jerusalem forever.

예루살렘은 축복에 있어 매우 특별하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이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번영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집 또는 성전이 영원히 예루살렘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⁶*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May they prosper who love you...”⁹Because of the house of the LORD our God [the temple in Jerusalem] I will seek your good. (Ps. 122:6-9)*

⁶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⁹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의 성전]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시 122:6-9)

II. ZECHARIAH THE PROPHET

선지자 스가랴

- A. Zechariah was from a priestly family, so he understood the priestly office and the temple. He was a young man when God called him to be a prophet (2:4). His family returned from the Babylonian exile in 536 BC (Neh. 12:1-4). It is probable that Zechariah came with them as a very young boy. Thus, we conclude that Zechariah’s family was devout and courageous because they went on the 700-mile, five-month trip through the wilderness to build the “house of prayer.”

스가랴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이로 인해 그는 제사장적인 직무와 성전을 이해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그는 젊은이였다 (스가랴 2:4). 그의 가족은 주전 536 년에 바벨론 망명으로부터 돌아왔다 (느헤미야 12:1-4). 스가랴가 그들과 함께 돌아왔을 때 그가 매우 어린 소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스가랴의 가족은 경건하고 용감한 가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이 “기도의 집” 을 짓기 위해 광야를 거치며 700 마일이나 되는 거리의 다섯 달이나 걸리는 여정을 했기 때문이다.

- B. Zechariah was martyred because of the message he spoke. (Mt. 23:35; Lk. 11:51).

스가랴는 본인이 전했던 메시지로 인해 순교당했다 (마 23:35; 눅 11:51).

- C. The messianic prophecies of Zechariah are second only to Isaiah’s.

메시아에 대한 스가랴의 예언은 이사야의 예언 다음으로 두번째 위치에 있다.

III. ZECHARIAH’S FIVE MESSAGES

스가랴의 다섯 가지 메세지

1. Calling Israel to *obedience* (1:1-6)
이스라엘을 향한 순종으로의 초청 (1:1-6)
2. The one night containing *eight visions* (1:7-6:15)
하루 밤 사이의 여덟개의 환상 (1:7-6:15)
3. The necessity of *fasting* (7-8)
금식의 필요성 (7-8 장)
4. Israel’s *deliverance, empowerment, and regathering* (9-11)
이스라엘의 해방, 능력을 주심, 다시 모으심 (9-11 장)
5. Israel’s *salvation, refinement, and transformation* (12-14)
이스라엘의 구원, 연단, 변화됨 (12-14 장)

IV. HISTORICAL CONTEXT OF ZECHARIAH: KNOWING THE STORYLINE

스가랴서의 역사적 배경: 이야기의 전개를 알기

- A. Zechariah’s message is set within the context of Israel’s greatest national crisis in the Old Testament. Most of the people were taken as captives to Babylon to live in “work camps” for seventy long years (606-536 BC). This was an unprecedented tragedy on several levels.

스가랴의 메세지는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겪었던 가장 큰 국가적 재난이 그 배경이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70 년의 긴 시간 동안 (주전 606-536 년) “강제 노동 수용소” 에 살았다. 이는 여러가지 면으로 전례없던 재난이었다.

- B. The dramatic story of rebuilding the house of prayer in the days of Zerubbabel, from 538-516 BC, is a powerful encouragement to those seeking to build a house of prayer in this hour. From God’s view, the temple in the past and future is His house of prayer. Isaiah was the first in Scripture to refer to the temple as the *house of prayer* (Isa. 56:7). Jesus called the temple the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1: “Why Study the Book of Zechariah?” & “Understanding Its Historical Context”

제 1 장: “왜 스가랴서를 공부해야 하는가?” 또한 “스가랴서의 역사적 배경 이해하기”

house of prayer, because its purpose was first and foremost to be a place of encounter with God in prayer and worship. It was to function as a worship sanctuary that continued night and day.

스룹바벨의 시대에(주전 538-516 년) 기도의 집을 다시 세우는 극적인 이야기는 이 시대에 기도의 집을 세우기는 비전을 가진 이들에게 큰 격려가 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나 미래의 모든 성전은 그분의 기도의 집이다. 이사야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성전을 **기도의 집**(사 56:7)으로 언급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성전을 **기도의 집**이라고 부르셨는데, 왜냐하면 기도의 집의 으뜸되는 존재이유는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의 기능은 밤 낮으로 계속되는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이었다.

- C. This drama started when God told Jeremiah a few decades ahead of time that Israel would go into captivity for 70 years. He prophesied that God would “visit” them and cause them to return.

이러한 극적인 상황은 이스라엘이 70 년 동안의 포로로 끌려가기 수십년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미 시작되었다. 그는 하나님이 그들을 “방문” 하실 것이고 그들이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¹⁰**Thus says the LORD: After seventy years are completed at Babylon, I will visit you and perform My good word toward you, and cause you to return to this place. (Jer. 29:10)**

¹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한글 흠정역판: 내가 너희를 찾아오리니 - 역주)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렘 29:10).

- D. This story is told in three passages (Ezra 1-6; Hag. 1-2; Zech. 3-8); it highlights four leaders who worked together in Jerusalem to help the remnant rebuild the house of prayer. They are Zerubbabel and Joshua, and the prophets Haggai and Zechariah.

이 이야기는 성경가운데 다음의 세 군데의 본문에서 언급 되어진다 (스 1-6 장, 학 1-2 장, 슄 3-8 장); 이는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들이 기도의 집을 재건 할 수 있도록 도왔던 네 명의 지도자들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여호수아 (스: 예수아/ 학, 슄: 여호수아로 기입되어 있으나 동일 인물: 역주), 그리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이다.

1. **Zerubbabel:** The governor of Judah functioned as an apostolic leader; he was responsible for mobilizing the people to build the house of prayer buildings (the temple complex).

스룹바벨: 사도적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유다의 총독; 그는 기도의 집 건물 (성전 구조물)을 짓기위해 백성들을 동원하는 일을 담당했다.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1: “Why Study the Book of Zechariah?” & “Understanding Its Historical Context”

제 1 장: “왜 스가랴서를 공부해야 하는가?” 또한 “스가랴서의 역사적 배경 이해하기”

2. **Joshua:** The high priest was responsible for overseeing the administration of the day-to-day functions of the priests and Levites in the house of prayer.

예수아: 대제사장으로서 기도의 집가운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일상적인 업무들을 주관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3. **Haggai:** The older prophet gave four messages in five months in 520 BC (Aug.-Dec.).

학개: 이 나이 들은 선지자는 주전 520 년에 다섯 달 동안 (8 월-12 월) 네 개의 메세지를 전했다.

4. **Zechariah:** Zechariah prophesied in the same time period as Haggai (Ezra 5:1). Haggai was the older prophet; his ministry is recorded for only a period of four months. They overlapped by one month as contemporaries, but Zechariah continued to prophesy after Haggai. We must study them together because Zechariah builds upon the truths highlighted in Haggai’s prophecies. He received his longest prophecy on the night of February 15, 519 BC, which consisted of eight visions (Zech. 1:7-6:8). A main theme in these eight visions was to build the house of prayer (Zech. 1:16; 4:6-10; 6:12-13).

스가랴: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에 예언했다 (스 5:1). 학개는 나이가 더 많은 선지자였다; 그의 사역은 네 달간의 기간 밖에 기록되지 않았다. 그들은 한 달 동안만 동시에 사역했으며, 스가랴는 학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언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동시에 연구해야 하는데, 이는 학개의 예언 속에 강조되어 있는 그 진리들의 발판 위에 스가랴의 예언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는 8 개의 환상으로 구성된 가장 긴 예언을 주전 519 년 2 월 15 일 밤에 받았다 (스 1:7-6:8). 이 8 개의 환상들의 중심 주제는 기도의 집을 세우는 것이었다 (스 1:16; 4:6-10; 6:12-13).

- E. **The two Persian kings: Cyrus** (600-530 BC) released and financed the Jewish captives to return from 70 years of Babylonian captivity to rebuild the temple in Jerusalem in 536 BC (Ezra 1). **Darius** helped the remnant with finances in their efforts to rebuild the temple in 520 BC (Ezra 6).

두명의 바사 (페르시아) 왕들: 고레스 (주전 600-530)는 주전 536 년, 유대인 포로들이 70 년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유대인들을 풀어주고 재정을 공급해 주었다 (스 1 장). **다리오**는 주전 520 년에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이 성전을 다시 짓도록 재정으로 도왔다.(스 6 장).

V. OVERVIEW OF THE STORY

줄거리 개관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1: "Why Study the Book of Zechariah?" & "Understanding Its Historical Context"

제 1 장: "왜 스가랴서를 공부해야 하는가?" 또한 "스가랴서의 역사적 배경 이해하기"

- A. ***A rich prophetic story:*** The prophetic history of the remnant was amazing—it included Isaiah, Jeremiah, Daniel, and Cyrus.

풍성한 예언적 이야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예언적인 역사들은 놀라웠다. 여기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그리고 고레스가 포함된다.

1. About 200 years before King Cyrus (750 BC), Isaiah prophesied that Cyrus would release the remnant of Israel from Babylon to go to Jerusalem and build the temple (Isa. 44:28).

고레스 왕에 앞서 약 200 년 전(주전 750 년), 이사야는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풀어주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사 44:28).

2. About 200 years later, Jeremiah prophesied that Israel would go into captivity, but would be released after seventy years to rebuild Jerusalem and the temple (Jer: 25; 29).

예레미야 25 장과 29 장에 보면 약 200 년 후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70 년 후에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풀려날 것이라 예언했다 (렘 25 장; 29 장).

3. More than fifty years after Jeremiah, Daniel, inspired by the writings of Isaiah and Jeremiah, sought the Lord with fasting and prayer (Dan. 9).

예레미야 이후 약 50 년이 지나서, 다니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서에서 영감을 받아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께 간구하기 시작한다 (단 9).

4. A few years later, the Spirit stirred up King Cyrus to free Israel and give them “millions” of dollars (Ezra 1) to return to Jerusalem and rebuild the house of prayer.

몇 년 후에, 성령님은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을 풀어주며, 그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공급함으로 (스 1 장)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기도의 집을 재건하도록 하셨다.

- B. With a rich prophetic history behind them, about 50,000 Jewish exiles returned to Jerusalem to rebuild the temple. Ezra says they were “stirred by the Spirit” to do this (Ezra 1:5). It was real, but it did not last. They arrived, and soon built the foundation and established musicians and singers who sang responsively (Ezra 3:10-11).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1: "Why Study the Book of Zechariah?" & "Understanding Its Historical Context"

제 1 장: "왜 스가랴서를 공부해야 하는가?" 또한 "스가랴서의 역사적 배경 이해하기"

이전의 풍성한 예언적인 역사를 등에 업고, 약 오만명의 유대인 포로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다. 에스라는 그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일을 했다고 말한다 (에 1:5). 이것은 실제였긴 했으나 유지되지는 않았다. 그들은 도착했고, 곧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며 악기 연주자들 및 화답하여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다 (스 3:10-11).

¹⁰When the builders laid the foundation of the temple of the LORD, the priests stood...to praise the LORD, according to the ordinance of David king of Israel. ¹¹And they sang responsively...All the people shouted with a great shout, when they praised the LORD, because the foundation of the house of the LORD was laid. (Ezra 3:10-11)

¹⁰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¹¹ 찬양으로 화답하며...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스 3:10-11)

- C. The journey from Babylon to Jerusalem took five months, covering about 700 miles (Ezra 7:9). The remnant returned to a city and temple that had been desolate for seventy years, since Babylonian armies destroyed it in 586 BC. They returned with the goal of building the temple and reestablishing the worship order that David had been commanded to establish (2 Chr. 29:25).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은 다섯 달이 걸렸으며 약 700 마일에 해당하는 거리였다(스 7:9).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군대가 주전 586년 파괴한 이후 70년 동안 황폐했던 도성과 성전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이 명령을 받은 예배 형식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돌아왔다 (대하 29:25).

- D. After arriving in Jerusalem, they lost their excitement within two years. In that time, they laid the foundation of the temple, and then, because of opposition from enemies, along with an economic and agriculture crisis, they **quit for sixteen years** (535-520 BC).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그들은 2년만에 초기의 기대와 설렘을 잃어버렸다. 그 때에 그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그 후에는 적들의 방해와 경제적 그리고 농업적 위기로 인해 약 **16년동안 일을 멈추게 된다** (주전 535-520년).

- E. There were three main obstacles in Jerusalem. The **Samaritans** moved into the land after Israel went into captivity, and aggressively opposed the remnant of Israel (Ezra 4:1-5, 24). The **remnant of Israel** struggled with spiritual lethargy, compromise, and fear (Hag. 1:1-11; Zech. 1:1-6). The **economic crisis** was intensified by drought and agricultural failure (Hag. 1:1-11).

예루살렘에는 세 가지 주요 방해물들이 있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사마리아인들이** 그 땅으로 들어와 거주하게 되었으며, 저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철저히 대적했다 (스 4:1-5, 24).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겪었던 영적인 내태함과 타협, 두려움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 (학 1:1-11; 슥 1:1-6). **경제적인 위기**는 가뭄과 농업의 실패로 심각해졌다 (학 1:1-11).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1: "Why Study the Book of Zechariah?" & "Understanding Its Historical Context"

제 1 장: "왜 스가랴서를 공부해야 하는가?" 또한 "스가랴서의 역사적 배경 이해하기"

- F. The house of prayer was rebuilt over a 22-year period (538-516 BC). The two most important dates to remember are **536 BC**, when they laid the foundation of the temple and then quit in discouragement (Ezra 3:10; 4:24), and **520 BC** when they restarted their labors (Ezra 5:1-2).

기도의 집은 약 22 년의 기간에 걸쳐 재건되었다 (주전 538-516 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날은, 성전의 기초를 세웠으나 낙담하여 일을 중단하였던 주전 **536 년**과 그들이 다시 일을 시작한 주전 **520 년** 이다 (스 5:1-2).

VI. EZRA 1-6: SIGNIFICANT EVENTS (538-515 BC)

에스라 1-6 장: 중대한 사건들 (주전 538-515 년)

- A. Ezra 1-6 describes significant events related to building the house of prayer.

에스라서 1-6 장은 기도 of 집을 세우는 데 있어 주요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 B. In 538 BC, Cyrus king of Persia (modern-day Iran) defeated the nation of Babylon (modern-day Iraq). Within a year of his victory over Babylon, Cyrus made a surprising decree to free the Jewish captives from Babylon and allow them to return to Jerusalem to build the house of prayer. He helped them financially (Ezra 1:1-5). The king of Persia assigned a stipend from the royal treasury for the support of the singers (Ezra 6:8). There were full-time singers and musicians in Zerubbabel's day (Ezra 2:65; Neh. 12:45-47).

주전 538 년에 페르시아 (현대의 이란) 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 (현대의 이라크) 을 무너트렸다. 바벨론에서의 승리 후 일년안에, 고레스 왕은 유대인 포로들을 바벨론에서 풀어 주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기도 of 집을 세우도록 하는 놀라운 법령을 발표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정적으로 도왔다 (스 1:1-5). 페르시아의 왕은 노래하는 이들을 후원하기 위해 왕실의 재정으로 부터 녹봉을 할당해 주었다. 스룹바벨 때에는 전임 노래하는들 자들과 악기 다루는 자들이 있었다 (스 2:65; 느 12:45-47)

- C. Ezra 1-2 is a description of the 50,000 exiles that returned from Babylon. After seventy years in captivity, there were over a million Israelites living in Babylon. They had families and jobs, and life was better, since King Cyrus had just freed them. Only those with conviction made the long journey back to Jerusalem. They returned, not because life in Babylon was hard, but because they believed what the Lord had spoken about building the temple in Jerusalem. Leaving was harder than staying, but this company of people made the journey.

에스라 1-2 장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오만명의 망명자들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70 년 간의 포로생활 끝날무렵 바벨론에는 약 백만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가족들과 직업이 있었고 고레스왕이 방금 그들을 자유케 했기에 더 나은 삶을 살았다. 그들 중에 오직 확신이 있는 자들만이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1: "Why Study the Book of Zechariah?" & "Understanding Its Historical Context"

제 1 장: "왜 스가랴서를 공부해야 하는가?" 또한 "스가랴서의 역사적 배경 이해하기"

예루살렘으로 긴 여정을 떠난 것이다. 그들이 돌아온 것은 바벨론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었으며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는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떠나는 것은 남아 있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 여정을 단행했다.

- D. To leave Babylon and return to Jerusalem was costly. Imagine this group of people and the kind of conviction they must have had to leave their comfortable lives, journey across the desert, and leave behind everything that was familiar to them to come to a ruined city to rebuild the temple. They were men and women of faith. These were the "fiery" ones. When they got to Jerusalem, the temple was just a pile of rubble.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일이었다. 이 백성에 대해 상상해 보라. 그들의 편안한 삶을 떠나 사막을 가로질러 여행하고 익숙한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오직 성전을 재건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서, 황폐해져 버린 그 도시로 돌아오기를 결정하려면 어떠한 차원의 확신이 있었을지 상상해보라.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이" 들이 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성전은 그저 부서진 돌무더기일 뿐이었다.

- E. In the seventh month of their first year in Jerusalem (536 BC) the altar was built (Ezra 3:1-2). In the second year, they began to work on rebuilding the temple itself (Ezra 3:8-9).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첫 해(주전 536 년)의 일곱째 달에, 제단이 세워졌다 (스 3:1-2). 둘째 해에, 그들은 성전 자체를 다시 짓기 시작했다 (스 3:8-9).

- F. Some months later, when the foundation of the temple had been laid, they celebrated. The older men wept because it seemed so small compared to Solomon's temple (Ezra 3:10-12).

몇 달 후, 드디어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을 때 그들은 이를 경축했다. 나이 많은 이들은 대성통곡을 했는데 이는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너무도 볼품없이 작아 보였기 때문이다.(스 3:10-12).

¹⁰When the builders laid the foundation of the temple of the LORD, the priests stood...with trumpets, and the Levites...with cymbals, to praise the LORD, according to the ordinance of David king of Israel. ¹¹And they sang responsively, praising and giving thanks to the LORD...All the people shouted with a great shout...because the foundation of the house of the LORD was laid. ¹²But...the old men who had seen the first temple wept. (Ezra 3:10-12)

¹⁰ 건축자가 여호와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¹¹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¹² ...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 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스 3:10-12)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1: "Why Study the Book of Zechariah?" & "Understanding Its Historical Context"

제 1 장: "왜 스가랴서를 공부해야 하는가?" 또한 "스가랴서의 역사적 배경 이해하기"

- G. Adversaries arose against those who were building the house of prayer, and the construction stopped in 535 BC. The Jews were discouraged and troubled. Their enemies (v. 4) hired counselors to frustrate them (v. 5) and wrote accusations to the government (v. 6) against them.

기도의 집을 짓는 이들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일어났으며, 주전 535 년에 공사는 중단됐다. 유대인들은 낙담했으며 괴롭게 되었다. 그들의 적들 (4 절)은 그들을 좌절시키기 위해 모사꾼들을 고용했으며 (5 절), 그들을 대항하여 정부에 그들을 고소했다 (6 절).

¹When the adversaries of Judah...heard that the descendants of the captivity were building the temple of the LORD...⁴The people of the land tried to discourage the people of Judah. They troubled them in building, ⁵and hired counselors against them to frustrate their purpose. (Ezra 4:1-5)

¹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⁵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한글 흠정역판 : 모사꾼들을 고용하여 - 역주) 그 계획을 막았으며 (스 4:1-5)

- H. The Persian government intervened and stopped the Jews from building the temple (v. 24).

페르시아 정부는 이에 개입하여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게 했다 (24 절).

²⁴Thus the work of the house of God which is at Jerusalem ceased [535 BC], and it was discontinued until the second year of the reign of Darius [520 BC]. (Ezra 4:24)

²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멈춰 [주전 535 년] 바사 왕 다리오 제이년 [주전 520 년]까지 중단되니라 (스 4:24).

- I. The Jews became discouraged in the face of obstacles and opposition. It is one of the saddest stories. They lost their vision and sense of purpose. They had made a big move in coming back to Jerusalem to build the temple, but now they did not want to do it. Opposition and economic problems caused them to be discouraged and preoccupied (Hag. 1; Zech. 8:10).

유대인들은 방해와 저항에 부딪쳐 절망했다. 이는 가장 슬픈 이야기 중 하나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전과 목적 의식을 상실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겠다는 중대한 결단을 했으나 이제 그 일을 더이상 하고 싶지도 않았다. 저항과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인해 그들은 낙담하며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다 (학 1 장; 스 8:10).

- J. Consider the 50,000 who went on that 700-mile trip and joined "staff." Sixteen years later they were saying, "Why are we here?" They made a five-month trip through the wilderness to go and build the house of prayer. They started out with deep conviction. They were the ones that originally said yes.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1: "Why Study the Book of Zechariah?" & "Understanding Its Historical Context"

제 1 장: "왜 스가랴서를 공부해야 하는가?" 또한 "스가랴서의 역사적 배경 이해하기"

700 마일의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까지 소위 "간사" 로 섬기겠다고 동참했던 그 오만명을 생각해보라. 16 년 후에 그들은 "우리가 대체 왜 여기 있는거지?" 라고 묻고 있다. 그들은 기도의 집을 세우기 위해 다섯 달 이나 걸려 광야길을 가로질러 와야 했다. 그들은 확신에 가득차서 이 일을 시작했었다. 그들은 본래 "예" 라고 반응하며 순종했던 이들이다.

1. Yet these are the same people, a little while later, who are in pain over the insignificance of their labors. They might have said, "What I am doing is worthless. I am here with a bunch of unanointed prayer leaders. I am broke and tired. I am doing this fasting thing. I do not like anything anymore. What am I doing here? This feels like prison."

그러나 이 동일한 사람들은 얼마 후에, 자신들의 노동이 무의미 하다는 고통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듯 하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가치해. 나는 여기 기름 부음이라곤 하나도 없는 수많은 기도 인도자들과 함께 있고 말이지, 나는 너무 피곤하고 지쳤어. 나는 이런 금식 따위나 하고 있고, 난 더 이상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거지? 여기는 마치 감옥 같아."

2. God would have replied, "No, it is not a prison. You are not wasting your life. It is your destiny of glory beyond anything that you can imagine. For such a time as this, you have come into the kingdom." They said, "Yes, but the beginnings are so small." That was the common error that the 50,000 were making.

하나님께서서 아마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이다, "아니야, 여기는 감옥이 아니란다. 너의 삶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너가 상상할 수 있는 차원 그 이상의 영광스러운 자리로의 부르심이야. 이와 같은 때에, 너는 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된 건이란다." 그들은 응답했다, "네, 그렇지만 시작이 너무 초라해요," 이것은 오만명이 동일하게 저지르고 있는 오류였다.

- K. After a delay of sixteen years (535-520 BC), God sent prophets to stir up the leaders to start building. Due to the opposition and discouragement, the people had stopped the construction of the temple and were focusing on their own houses and building their own lives. Through Zechariah and Haggai, the Lord brought correction and direction to them to begin anew.

16 년이 지연된 후에 (주전 535-520 년), 하나님은 건축을 시작하도록 리더들을 감동시킬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저항과 낙담으로 인해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중단한채, 그들은 자신의 집을 짓고 그들의 삶을 세우는 데에 몰두하고 있었다. 주님은 스가랴와 학개를 통해 저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시고 지도해주셨다.

¹Then [in 520 BC] the prophet Haggai and Zechariah...prophesied to the Jews who were in Judah...²So Zerubbabel...and Jeshua...rose up and began to build the house of God which is in Jerusalem; and the prophets of God were with them, helping them. (Ezra 5:1-2)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1: "Why Study the Book of Zechariah?" & "Understanding Its Historical Context"

제 1 장: "왜 스가랴서를 공부해야 하는가?" 또한 "스가랴서의 역사적 배경 이해하기"

¹[주전 520 년]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²이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스 5:1-2)

- L. After about five years (520-516 BC) of hard work, they completed the temple (Ezra 6:15-16). They were depressed and hurting financially, but even in the face of difficulty, God wanted them to build the house of prayer. He promised to supply their economic needs (Hag. 1-2)

약 5 년간 (주전 520-516 년)의 고역 이후에, 그들은 성전을 완공했다 (스 6:15-16). 그들은 우울했고 재정적으로 어려웠으나,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라도 그들이 기도의 집을 지어나가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의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할 것을 약속하셨다 (학 1-2 장).

¹⁴*The elders of the Jews built, and prospered through the prophesying of Haggai the prophet and Zechariah...and they built and finished it...*¹⁵*The temple was finished on the third day of the month of Adar...in the sixth year of the reign of King Darius [515 BC]. (Ezra 6:14-15)*

¹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¹⁵ 다리오 왕 제육년 [주전 515 년] 아달월 삼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스 6:14-15).